

# 역사가 기록하기 전 세상을 바꾼 사람들

## 제일 처음 꿀을 먹은 사람은 누구일까

코디 캐시디 지음, 신유희 옮김

누가 처음 맥주를 마셨나? 제일 처음 꿀을 먹은 사람은 누구인가? 사소하지만 한번쯤 의문을 가질 법한 질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들은 수만 년의 역사에 비하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한 이후 30만 년을 24시간으로 본다면, 기록된 역사는 하루가 끝나기 겨우 30분 전에야 시작된다. 23시간 30분의 시간은 공백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을 살상한 이는 사람이 아니라 천연두였다. 사진은 천연두 예방 접종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아프리카 주민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중요한 것은 역사가 기록되기 전에도 오늘날의 전형적인 인물들은 존재했다. 다빈치와 뉴턴에 견줄 만한 천재도 있고 바보와 배신자, 사이코패스도 있었다. 그럼에도 세상을 변화시켜온 놀라운 혁신과 그 뒤에는 천재들이 존재했다. 다시 말해 역사가 기록하기 전, 세상을 바꾼 이들이 있었다.

흥미진진하고 기발한 문명 탐험을 다룬 '제일 처음 꿀을 먹은 사람은 누구일까'가 발간됐다. '그리고 당신이 죽는다면'의 공저자이자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는 코디 캐시디가 저자다. 그는 사소한 것들의 최조를 밝혀내기 위해 그 당시를 파헤친 많은 연구를 프로파일링한다. 특히 유전학에서 진화생물학, 고고학, 심리학, 인류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렌즈를 통해 오래전 가장 위대한 처음이 일어났던 시기를 드러낸다.

그렇다면 언급한대로 처음 꿀을 먹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걸리버 여행기'를 쓴 영국의 풍자 작가 조너선 스위프트는 "그는 세계 최초로 꿀을 먹은 대담한 남자였

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러나 저자는 세계 최초로 "창백한 킷블처럼 생긴" 꿀을 먹은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을 것이라고 본다. 16만 4000 년전에는 남녀의 역할이 엄격하게 구별돼 있었는데, 당시 채집은 여자의 일이었다는 얘기다.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을 살상한 이는 사람이 아니다. 바로 천연두다. 약 4000년 전 아프리카 북동부에서 작은 먼지에 실려 온 베리올라 바이러스다. 천연두의 원인이 되는 이 바이러스는 한때 신대륙을 쓸어버리다시피 했다.

"18세기 천연두는 매해 유럽인 4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20세기에는 세계 1차, 2차 대전을 합친 거소 다 세 배나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또한 유럽인들과 함께 신대륙에 상륙하여 아즈텍과 잉카 제국을 몰락시키는 데에도 지대한 역할을 했다."

저자는 이 무시무시한 천연두는 4000년 전 오늘의 에티오피아 또는 에리트레아의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 새로 나온 책

▲태극기 오얏꽃 무궁화=국가 상징 이미지의 탄생 과정을 추적한 책이다. 미술 사학자인 저자 복수현은 태극기·오얏꽃·무궁화 이미지가 조선이 근대국가로 성립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벌인 투쟁의 산물이라고 밝힌다. 이와 함께 우표와 화폐라는 근대적인 제도에 국가 상징 이미지가 도입되는 구체적인 과정도 살펴본다. <현실문화사·2만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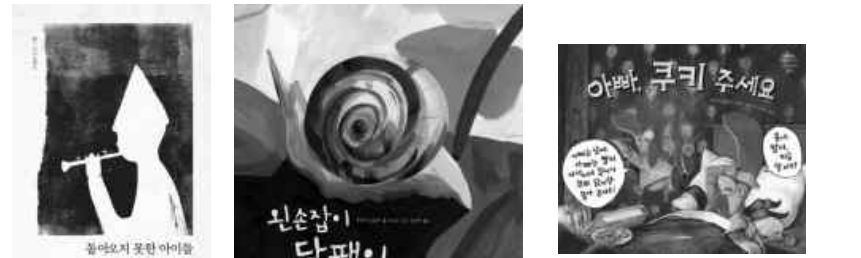
▲식물상담=플리워·가드닝 '가드너스 와이프'의 대표 강세종의 15년 홈가드닝 노하우를 담았다. 저자는 단순히 지금 식집사들에게 유행하는 종의 특성을 나열하는 식이 아닌, 식물의 기본적인 성장 환경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우리집으로 온 식물이 맨 처음 어디서부터 왔는지부터 고민하다 보면 식물을 떠나보내는 일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전한다. <북하우스·1만8000원>



▲세상을 이해하는 아름다운 수학 공식=영국 수학 교사인 저자 크리스 워링은 시간, 거리, 속도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부터 열역학 법칙, 케도 역학 등을 그림과 설명으로 보여준다. 저자는 또 수학자들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실생활의 문제들과 그에 대한 해답을 수학 공식과 유머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21세기북스·1만7000원>

▲여름에 우리가 먹는 것='이클테면 에 필로그의 방식'에 이은 송지현 작가의 두번째 소설집. 현대문학상 후보작에 이름을 올리며 독자들에게 널리 읽힌 표제작 '여름에 우리가 먹는 것'을 포함해 '손바닥으로 감자를 감싸서', '오늘의 가족', '삼십 분 속성 플라멩코', '나이트클럽 연대기' 등 수록작 9편은 '휴먼-정춘 소설'이라는 세계의 매력을 전한다. <문학동네·1만40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최소한의 보로도 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청소년 현장 실습 노동자와 사회 초년생 청년 노동자들의 반복된 죽음을 고발한 그림책. 고정순 작가는 책을 통해 꿈을 찾아 일터로 갔으나 집에 돌아오지 못한 우리 시대 청년들을 애도하고, 책임 있는 어른들에게 이 죽음을 멈추는 강력한 제도를 만들라고 호소한다. <노란상상·1만3000원>

▲원손잡이 달팽이=긴 시간의 흐름 안에서 탄생한 달팽이(다양성)의 존재를 긍정하고, 생명의 경이로움을 담았다. 그 중에서 달팽이 제레미라는 작고 특수한 생명체를 통해 시간, 우연, 유전, 사랑,

죽음, 진화같이 추상적인 개념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한다. 다채로운 색깔의 큼직한 그림은 작은 달팽이의 존재를 더욱 빛나게 해 준다. <라임·1만3800원>

▲아빠, 쿠키 주세요=데이비드 예즈라 스테인이 '아빠, 숙제 도와주세요' 이후 3년만에 다시 꼬마 닭과 아빠 닭의 새로운 이야기로 우리 곁에 찾아왔다. 이야기는 엉뚱한 꼬마 닭이 아빠를 위한 아침을 차리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아침으로 쿠키가 먹고 싶다면 아빠를 졸라 대는 꼬마 닭의 모습은 현실 속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며 웃음을 자아낸다. <시공주니어·1만3000원>

# 클래식 아티스트들 인고의 시간을 들여다보다

## 음악,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이지영 지음

광주시립교향악단의 'GSO 오티움 콘서트' 해설자인 이지영 '발코니' 편집장을 공연에서 본 적이 있다. 코로나 19로 완전히 닫혔던 공연장 문이 다시 열린 날의 연주 무대였다. 관람객도 연주자도 모두 울컥했던 그날, 그는 관람객들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짧지만 핵심을 알려주는 연주 곡목 소개와 연주자들과의 담백한 인터뷰가 인상적이었다.

그의 책 출간, 그것도 '인터뷰집' 발간 소식을 접했을 때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20년간 클래식 연주회 기획과 해설·글쓰기 등을 해온 전문가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아티스트들과의 대화가 만들어낸 이야기에 기대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음악, 당신에게 무엇입니까"는 그런 기대에 정확히 부응하는 책이다. 한 두 시간 인터뷰하고 써낸 글이 아닌, 수십년의 세월이 녹아있는 인터뷰는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이 아티스트들의 깊은 속내까지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료들이다.

1부는 클래식 아티스트들의 이야기가, 2부는 클래식과 인연을 맺고 있는 다른 분야의 아티스트 이야기가 담겼다. 책에 담긴 14명의 인터뷰는 모두 '공들인 시간, 기다림, 오래 묵혀 만들어내는 것들의 좋음'에 대해 이야기한다.

소개된 아티스트들의 면면은 '오늘의 한국 클래식'의 최전선이다. 백건우·정경화·조수미 등 이미 일가를 이룬 중견 아티스트부터 조성진·손열음·임동혁 등 한참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20~30대 연주자들의 솔직한 이야기가 담겼다.

수십년의 세월을 '한결같음'으로 달려온 중견 연주자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스승'이었고 대화를 하며 그는 그들의 진심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무엇이 남과 다른 음악을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에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는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 귀에 만족스러울 때까지, 원하는 소리를 만들어낼 때까지 연습했어요."라고 답한다. 연주활동 뿐 아니라 유니세프 활동 등 사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는 소프라노 조수미는 "살면서 닦고 싶었던 분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하며 살았고, 동시에 철저하게 남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가 부르는 노래는 더 마음을 울리는 지 모른다.

이 책의 출발은 '올드보이' 등에서 남다른 음악적 감성을 보여준 박찬욱 감독의 취향이 궁금해 시작한 인터뷰였다. 그와의 인터뷰는 역시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하고 발레와 클래식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에 발레리나 강수진과 나눈 이야기도 인상적이다.

그밖에 '풍월당'의 박종호 대표, 톤마이스터 최진, 조선일보 클래식 전문가 김성현, 안무가 안상수, 사진작가 윤광준 등이 생각하는 '음악'에 대해서도 만날 수 있다. <글항아리·1만8000원>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